“문경 세계명상마을 경북 도민의 큰 자부심”

‘이철우 경북도지사’ B1면에서 계속

△시급한 과제로는 인구소멸 문제가 두드러졌는데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귀농, 귀촌 등으로 전원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의료 및 문화시설의 부족과 경제적인 실질 혜택 미흡 등으로 예전보다는 관심이 크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의 유동인구 유치를 위해 다른 경쟁지역보다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경상북도는 귀농 귀촌 1번지로 2021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 1위이고, 특히 30대 이하 귀농가구가 2020년 전년보다 무려 44.1%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 농작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해서 농업소득이 높기 때문인데, 연 1억원 이상 버는 가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8천호 이상이고 한 가구당 소득도 경북이 전국 1등입니다. 사과 참외 인삼 등이 주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도시의 답답한 생활이 고민인 분들은 주저 말고 경북도와 산하 각 시 · 군에 전화주시면 현실적인 도움을 친절히 안내 받으실 것입니다.

#문경 명상마을 발전방향은?

△이 지사님을 비롯해 경북도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건립된 걸로 압니다. 특히 올 10월 28~30일까지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로 치러지시길 바라시는지요?

=우선 이번 대한민국 청년희망 캠프는 청년들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행사가 되길 발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밝은 희망과 미래를 위해 큰 원력과 공덕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준 각산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학업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대부분 이 청년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희망캠프를 통해 명상과 힐링은 물론 마음의 평안까지 얻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잡스’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등 외국 유명인사들도 명상 매니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과 치유의 시간, 지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 마음근육이 튼튼해져 끊임없는 경쟁시대에서 당당히 멋진 사회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초석을 쌓기를 희망합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경북도민들의 정신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길 바라시는지요?

=인간은 정신과 혼이 없으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한국정신문화의 원류이자 본류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화랑’ 선비‘ ’호국‘ 등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신라의 화랑정신인 세속오계 역시 불교에서 큰 영향을 받았듯이, 불교계의 원력으로 세워진 문경 명상마을은 분명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경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우리 경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종교와 이념 및 국적을 떠나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 줄 국민선원과 정신문화의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 ‘수처작주’의 액자를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항상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신 함양을 위해 불교계서 하는 명상 수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상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일반 병원들이 환자 및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시설을 구축해 놓은 걸로 압니다. 불교의 명상 수련 목적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참된 나’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탈종교화 현상으로 종교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교 명상의 사회적 관심은 날로 더 높아져 갑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명상을 통해 인류가 인성을 회복하는 더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한국의 불교명상 수련이 전 세계인을 매료해 ‘K-명상’이라는 새로운 한류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북은 불교 문화 중심지이자 寶庫
전통사찰 974개 중 178개로 1위 차지
세계유산 5개 경북 위치, 3개 불교유물
재임중 불교문화 콘텐츠개발 적극 지원

문경 세계명상마을 정신문화 싱크탱크
10월 28~30일, 청년희망캠프 개최
마음 근육 키워주는 행사 되길 발원

△경상도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불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들도 많고 불자들의 신심도 돈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선 도지사로 계시면서 도민들중 불자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불교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은 불교문화의 중심지이자 보고(寶庫)이며, 이들은 우리 경북의 소중한 문화관광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국 전통사찰 974개 중 경북에 178개(18.3%)로 1위를 차지합니다. 전국 사찰수 17,100여개(추정) 중, 도내에는 2,200여개가 소재한 것으로 조사돼 있죠. 이 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개 중 5개가 경북에 있는데, 3개가 불교관련 유물입니다. 특히 한글을 지킨 안동 ‘광흥사’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한 ‘간경도감’이 있었던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신심 깊은 불자들도 많습니다. 지역을 넘어 중앙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 구미 출신이시며, 장정화 (사)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예천 출신인걸로 압니다. 이렇듯 우리 경북에는 불교 유물과 불교 인재들이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자아성찰과 중생구제의 목표로 관념적이 아닌 현실생활과 밀접한 철학과 사상이 가득한 종교로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동안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행복사회 구현에 앞장서왔습니다. 불교에는 여덟 가지 복을 짓는 팔복전(八福田)이 있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자타불이의 정신이 깃들어 있죠.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가 여기 다 나와 있는 듯합니다.

#평소 불교에 대한 생각은?

△경전이나 경구 등 부처님 가르침중에서 평소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제록에 나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이 저의 평생 좌우명이자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뜻을 풀이해 설명하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란 의미이죠. 어느곳을 가든지 모두가 자신이 할탓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에 매진한다면 가는곳마다 리더로 우뚝선다는 말입니다. 저는 수학교사, 국정원, 경북부지사, 3선 국회의원, 도지사 등 여러 직업과 소임을 맡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오로지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지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일념이었죠.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불교는 1700년 동안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하며, 민족의 정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생구제의 보살행, 국난극복의 호국불교(몽골 침입, 임진왜란 등)에 큰 영향을 주었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지만, 가치부재 사회와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무한경쟁, 갑질 사회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의 가치는 분명 재조명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가 이타행으로 ‘배려’를, 화쟁으로 ‘통합과 화합’ 정신을 통해 정신적 선진국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일어서는데도 불교의 큰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는 불교와 전통사찰을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도지사 재임 기간중 △전통사찰 보존 관리 △불교 역사유적지 보전 △불교문화의 관광자원화 △치유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문화 콘텐츠개발 적극 지원 및 명품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파 조계종 종정 예하께서 통도사 서운암 방문시에 친필 휘호를 이 지사님께 내려주신걸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글귀였으며, 종정예하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복혜구족(福慧具足)’이란 친필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복과 지혜가 차고 넘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휘호를 받고 위민의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또한 전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사람 냄새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파 종정예하는 올 3월에 취임 하신 후, 4월 문경 세계명상마을 개원기념 간화선 대회 기간을 비롯해, 6월 말 통도사 서운암에 직접 찾아가 예방했으며, 7월 26일에는 성파 종정 예하께서 경북도를 직접 방문해 경북도 공직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파 종정예하께서는 한국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시지만 소박한 분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예술에 대한 조예가 무척 깊으셨습니다. 통도사 서운암 방문 때는 도자대장경과 천연염색 등 예술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방문 때 국학진흥원을 방문하시는 등 불교뿐 아니라 국학과 유학 등에도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로 불교계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성 회복과 불교의 종단 화합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발전 시키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3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3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년 전통 인쇄 기술력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